

현대불교 구독료 자동이체하세요

02-737-0090

- ▶ 자동이체 하면 좋은 점
-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됩니다.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 통장에 납부내역이 자동기록됩니다.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이름뿐인 경승

대한불교경승단(단장 도영)이 7월 19일부터 한달여에 걸쳐 경찰청과 지방청을 포함해 전국 200여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승현황 파악에 나섰다.

경승의 유무와 활동 상황은 물론 경승실 설치 유무, 경찰청 교외 구성 및 활동현황, 주요 임원현황 등이 조사대상이다. 경승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찰청 포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아니라도 경승이러면 경찰불자들의 신행과 경승불교회의 법회를 지원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본듯이 경승들의 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포교 현장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지방경찰청의 경우 6명만이 넘는 직원 중 경승불교회의원은 30여명에 지나지 않을 만큼 경찰포교가 미약한 데도 이곳 경승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경승은 "솔직히 이름만 걸여놓고 명예의 민원 해결 등 잇속만 챙기는 경승들도 있다"며 "중요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포교의지가 없는 경승 본인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사시작 20여일 동안 집계된 70여 경찰서 상황을 보면, 정기적인 활동이 전무한 곳이 절반을 넘는다. 이름만 걸여놓을 뿐 활동은 하지 않는 경승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과 경찰에 대한 선교를 강화하고 있는 개신교 등 타종교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승단에서는 "경승은 경찰 및 가족, 부상자 및 유가족, 유치인 등에 대한 포교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경승의 역할을 규

명하는 경찰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경승의 적극적인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포교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한마디로 인식부족과 무관심 때문이다. 임명된 경승의 활동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이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없이는 미봉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조계종 등 각 종단의 편식과 경승단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박봉영(취재 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법문 서비스

1. 정기적으로 경전 내용이나 스님의 법문 등을 제공 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원한다 ② 원치 않는다
2.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 ① 이메일 ② 핸드폰 문자서비스 ③ 우편물 ④ 전화 서비스 ⑤ 소행 책자 ⑥ 기타

설문 참여: 8월 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부정확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2호 15면에 실립니다.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8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381호

불교계 정보화 "잘 안돼 있다" 46.2%

컴퓨터 사용사찰 1,722곳 42%... "구입계획 없다" 2,215곳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2면 특집 11·12·13·14면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5002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은 절반(49.9%)으로 조사됐다.

5,002곳 가운데 4,135곳에 해당하는 사찰의 컴퓨터 사용률은 41.7%인 1,722곳으로 절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사찰 2,435곳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2,215곳이 향후 구입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주된 원인은 사용이속(44%)과 비용에 대한 부담(2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203명의 사찰 주지스님과 종무원, 단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선권 및 면접조사에서는 46.2%인 530명이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

"별로 잘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고 37.5%(430명)는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불교계의 정보화가 업무개선에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89.1%(1,072명)는 포교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사급히 불교계에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네트워크의 형태는 불교전체는 아우르는 거시적인 규모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6.5%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협력해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화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고 광범위한 정보화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마음부처님 찾아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사찰과 단체에서 캠프, 수련대회, 불교학교 등을 개최.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맑은 상상을 되찾아 주고 있다. 사진은 본사가 7월 30-8월 1일 법주사와 속리산 유스타에서 개최한 부다피아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9면) 사진=고영배기자

법륜스님, 막사이사이賞 수상

선정위, "남북한 화해·탈북자 지원 공로"

법륜스님(종은빛을 이사장이) 7월 29일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평화 국제이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막사이사이상 선정위는 "스님이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토회를 설립해 탐욕, 빈곤 및 환경과 파괴 등 근대사회 전반에 걸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해왔다"며 "정치적 정파에 개의치 않고 한반도 분

단으로 인해 희생된 생명들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관심과 남북 화해에 대한 희망적 호소, 탈북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법륜스님 인연회 3만 명을 모은 막사이사이상 수상에 대해 불교계는 물론 민주당 한나라 당도 7월 30일 '법륜스님 수상 경하' '법륜스님 수상 환영' 등의 논평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남동우 기자 danam@buddhanews.com

불교계, 북한산지키기 법률 대응

7월 26일 법원결정 반발, 항소·집행정지 신청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결정에 반발, 불교계가 법원에 항소와 항고, 집행정지를 연이어 신청했다.

조계종 회통사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판결에 불복, 7월 29일 "철마선원 등은 회통사가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할 권리가 없다. 재판부가 채무자 선정을 잘못했다"며 의정 부지원에 항소했다.

이어 관음중 미가사 등은 "항소의 판결 선고까지 철마선원 철거 집행을 중지해 달라"며 1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덕천사 등 북한산 19개 사찰도 1일 "회통사와 흥불사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도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북부지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한편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1일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을 중지하고 대안노선을 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shan@buddhanews.com

'오늘의 종교 디딤돌·걸림돌상' 제정

종교 NGO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비롯 천주교 개신교 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NGO네트워크(공동대표 박광서, 김동한 박순희)가 9월 9일과 12일에 종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과 역행한 사람을 뽑아

'오늘의 종교 디딤돌상'과 '오늘의 종교 걸림돌상'을 발표한다.

'오늘의 종교 디딤돌상'과 '오늘의 종교 걸림돌상'은 교단 재정의 투명성 확보 권위적 성직주의 타파, 가부장적 이교 반성명적 종교문화 혁명, 교단개혁 대안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유신 기자

불교정보화 분야 활성을 위한 건의문

불교가 우리민족 역사와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 진리를 바탕으로 사상과 문화의 풍향계를 순환시켜 왔기 때문이다. 나와 너가 물이 아닌 진리의 강에서 포용과 화해의 도리를 살의 현장에 잠복시켜 온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민족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불교는 어떤 시절 어떤 속에서도 불 권위하에 안도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던 것이다.

때문에 불교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를 맞아도 시대 흐름을 따라잡고 한 발 앞서 나가 삶의 보편적 진리에 입각한 가치의 중심을 잡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문명 기기와 기술의 발달이 삶의 풍속도를 급변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 쪽에서는 문화와 사교의 격차가 심화되어 각종 변화의 비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땅에 떨어진 사람이 땅을 잡고 일어나야 하듯 정보화 사회의 명징은 앞선 정보화 기반과 차원 높은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아직 와곡을 따라잡지 못한 실정입니다. 2002년 4월 한 달 간 실시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에 응답된 불교계 5000여 사찰과 단체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은 절반에 해당하는 2497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과 단체들의 91%에 해당하는 곳이 향후 컴퓨터를 구입해 쓰고자 하는 의지마저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 가운데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곳은 74.6%인 1843곳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불교계 사찰과 단체의 30% 선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조사한 전국 초고속인터넷 이용률과 대비 한 결과에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즉,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 말 현재 인터넷 인구 기준 50%가, 가구 기준으로는 70%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반해 사찰의 이용률은 15%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5월 KT 자체 조사 자료)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불교계의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실태는 정보화 사회의 표면적 화려함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교계가 정보화 사회를 거부하거나 방관,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각 종단과 단체별로 사무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 왔으며 각종 사이트의 운영과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정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간의 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가 시키고 불교계 전반을 포용하는 정보화 기반 조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불교계 불교정보화협의회는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를 통해 불교계의 정보화 현황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향후 정보화 사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한 결과 및 가치 중요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불교계 정보화가 민족 문화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들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각종 정보화 사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에 융화된 불교의 자양분이 새로운 가치로 창조돼야 합니다.

불교계 각 종단과 단체들은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의 50%가량은 컴퓨터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입 의지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컴퓨터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사찰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컴퓨터 교육시스템의 운영이 절실합니다. 그와 함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 문화의 거점이 되고 민족문화 향양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사찰에 컴퓨터를 지원할 가격에 보급하고 각종 콘텐츠를 개발 활용토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같은 정보화의 저변을 본뜬히 하는 제반 사업들은 불교계 내부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었으면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에서 불교계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국가 정보화 사업 가운데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경우 불교는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 사찰은 그 지역의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반시설조차 구축되지 않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 지역 사찰들이 품고 있는 역사 문화 환경 교육적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까지를 목표로 한 제 2차 전국적인 'K-KOREA VISION 2006' 사업 등에 전국 불교 사찰과 문화회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불교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없는 불교문화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불교정보화 실태조사'에 참여한 사찰 단체의 대부분 56%가 불교계 전체를 연결하는 거시적이고 대중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교의 정보화 인프라는 종단과 단체 등을 초월해 불교전체를 아우를 때 종교를 뛰어넘는 문화, 환경, 교육적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불교정보화 네트워크의 다양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불교계의 주체적 움직임에 정부는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은 점진적 발전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불교정보화 협의회는 불교정보화의 보다 적극적인 운영주체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사업의 개별적 연구와 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 연구와 공익적 사업의 추진을 결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기반 시설의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불교계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와 종단과 정부가 나서서 선도해야 할 사업들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인 발전 구도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통해 불교계와 정부가 정보화를 통한 민족문화 향양의 길을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불교계의 정보화는 우리 문화 부흥의 열망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 아래 불교정보화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던 만큼 각종 발전 방안의 모색과 그를 통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실태조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시키고 차원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일조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 건의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가칭) 불교정보화 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교원종, 불교총지중, 고려대장경연구소, 청소년교화연합회, 생명나눔실천회, 여성불교연합회,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수덕사, 봉선사, 선홍사, 불국사, 법어사, 선운사, 월정사, 쌍계사 (이상 무순)